



살인에 관한 추리... 현실인가 허구인가

김영하가 돌아왔다. 폭죽 찢는 한여름, 무시무시한 살인 이야기를 들고서.

작가는 더위 사랑만을 겨냥하지는 않은 것 같다. 소름 끼치는 공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김영하가 아니다.

그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스타일리스트 작가다. 자신만의 방식과 입담으로 20여 년에 걸쳐 도발적인 소설을 발표해왔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호출', '아랑은 왜'는 그의 독특한 글쓰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들이다.

이번에 펴낸 '살인자의 기억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보물'을 품공 숨겨놓고 20여 년에 걸쳐 도발적인 소설을 발표해왔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호출', '아랑은 왜'는 그의 독특한 글쓰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들이다.

이번에 펴낸 '살인자의 기억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보물'을 품공 숨겨놓고 20여 년에 걸쳐 도발적인 소설을 발표해왔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호출', '아랑은 왜'는 그의 독특한 글쓰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들이다.

이번에 펴낸 '살인자의 기억법'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보물'을 품공 숨겨놓고 20여 년에 걸쳐 도발적인 소설을 발표해왔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호출', '아랑은 왜'는 그의 독특한 글쓰기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들이다.

이제 보물 문화센터 강사로부터 시 쓰는 강 의까지 듣는다.

그러나 현재 김영하는 알츠하이머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70세인 그는 사라져가는 기억과 사투를 벌이며, 마지막 살인을 계획한다. 그는 갑자기 출현한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지켜야 할 딸이 있다.

김주태는 짧은 아가씨만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이다. 그가 김영하의 딸을 목표로 하는 건 스토리 전개상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과거 미제사건을 추적하는 안 형사의 등장으로 스토리를 극적으로 몰고 간다. 모든 살인범은 잡히기 마련이라는 광적인 확신은 흥미를 배가한다.

어찌 보면 전형적인 범죄 미스터리물이다. 살인을 두고 벌이는 치밀한 두뇌싸움이라는 고전적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과연 그렇까. 작가 김영하는 이 대목에서 반전을 시도한다. 엄밀히 말하면 작가가 노리는 서사적 재미는 살인에 관한 추리가 아니다.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현실과 허구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물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70대 김영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영하는 잊혀져가는 기억을 불리기 위해 매일 글을 쓴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까지 녹음을 하며 기억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억은 증발해버린다. 나아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지음

과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것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한다. 독자 또한 김영하의 살인이 과거의 사실인지 허구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작가가 펼쳐 보이는 서사 너머에는 시간, 기억, 삶이 자리한다. 어느 살인자도 시간이라는 기억을 뛰어넘을 수 없다. 어떤 독자도 시간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작가는 말한다. "무서운 건 악이 아니요,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 없거든."

<문학동네·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문화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일본편 1·2' 유희준 지음

한국 인문서 최초 밀리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희준 명지대 교수가 이번에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일본편'을 펴냈다. 최근 한일축구 응원전을 계기로 양국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책 발간의 의미가 각별하다.

저자는 한국이 일본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흔적을 찾고, 그 바탕에서 일본문화가 꽃피게 된 과정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탐사해나간다. 그 이면엔 한일관계 주요 주제인 과거사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1권 '규슈-빛은 한반도로부터'는 규슈 지역을 답사하며 일본 고대사와 관련된 유적을 토대로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확인한다. 그러면서 백제의 도기와 조선 도공의 영향을 받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공민화의 현존을 애석해한다.

2권 '아스카, 나라-아스카 들판'에 백제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고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이들의 발자취를 찾는다. 일본 고대문화의 정점인 약사사(藥師寺), 흥복사(興福寺) 등을 돌아보면서 가이인의 흔과 의미를 고찰한다.

그러나 저자의 시각은 민족주의적 편협성에 매몰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의 영향을 근거로 성취해낸 문화적 우수성에 대해 주목하고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취한다.

<창비·각 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대 위에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풍경

'무대미술의 눈' 최상철 지음

무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망한 책이 나왔다. 무대미술가 최상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펴낸 '무대미술의 눈'은 저자가 10여 년에 걸쳐 써온 극장 기획이자 공연 관람기이다.

저자는 국내를 비롯해 아테네, 프라하, 아비뇽, 베를린 등 세계 곳곳의 극장과 무대 인상을 무대미술가 시선으로 그려낸다. 무대미술이 구현된 현장의 기록을 통해 극장의 과거와 현재를 탐사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점쳐낸다.

저자가 새로운 유형의 무대로 소개하고 있는 체코 리마의 테아트르포레모 극장은 화제로 소설된 공간이다. 납미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했던 극장이 1998년



화제로 폐허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건축가, 무대미술가, 연출가 등이 합심해 새로운 치유 공간으로 거듭난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의 눈에는 버려진 폐색장이나 창고, 후수, 건물 옥상도 공연의 훌륭한 내적 소재가 된다. 특정한 조건을 배경으로 상연된 공연은 새로운 작품 해석은 물론 기존과는 차별된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특정 장소는 가시적인 것뿐 아니라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 추억, 꿈과 연계된다. 그와 관련된 기억 때문에 장소에는 언어나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미지의 것, 가시적인 조건을 초월한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

<안그라픽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럽은 왜 기계시계를 만들었을까?

'시계와 문명' 카를로 치폴라 지음

"시계는 모든 정밀 기계의 원형이다. 일단 시계가 섬세하고 매혹적인 장난감으로서 단순한 찬탄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정밀 기계로 여겨지는 순간, 순진무구했던 산업의 시대는 끝난다."

이탈리아 역사학자인 카를로 치폴라가 쓴 '시계와 문명'은 근대 초 유럽 문명의 극적인 부상을 기술 진보의 측면에서 탁월하게 설명한 저작으로 그의 또 다른 저서 '대포, 범선, 제국'과 함께 유럽 근대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이다.



13세기 후반, 가장 후진적인 문명인 유럽에서 최초로 기계식 시계가 탄생한 뒤 산업의 시대와 대량 생산의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은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 '시계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중국은 어째서 기계 시계를 만들지 못했을까?' 등 질문에 답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극적인 근대사적 분기를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미지북스·1만3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전한 일상... 부대끼는 사람살이

'전당포는 항구다' 박형권 지음

'방세 두어달 밀리고 공과금 고지서는 쌓여만 가는데/ 죽을 뻔 죽더라도 삼겹살 몇 덩이 씹어보고 싶어서/ 전당포 간다/ 육질이 쫄깃했던 내 삶은 일화용 반창고처럼 접착력이 떨어/ 오늘 하루 버티는 일에도 목숨을 건다.'

구수한 입담으로 민초들의 소박한 삶을 그리는 박형권 시인의 두번째 시집 '전당포는 항구다'가 출간됐다. 2006년 사대대 중반의 늦깎이로 등단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가난한 삶을 꾸러가는 서민들의 변두리 인생을



꼭진하게 그려내며 섬세한 감성의 실태를 풀어놓는다. 자본주의 뒤편에서 부대끼는 수많은 도시민들이 시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번 시집은 시인이 육안으로 본 거대도시 주변부 동네와 사람살이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시인은 시단의 풍토나 유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걸어 올린 친근한 일상 언어로 도시민들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준다.

<창비·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시들한 내 삶의 선물... 나는 파리로 간다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손미나 지음

"파리에 살고 싶다는 것은 내 오랜 소망이었다. 그러나 서른살이 넘어서도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내 인생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커다란 파도가 밀려왔다... 악몽 같은 시간을 온몸으로 버티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제야말로 파리로 가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전 KBS 아나운서인 손미나 작가가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를 펴냈다. 파리에서 3년 넘게 살면서 파리 지방의 삶과 철학, 스타일을 보고 느낀 일면을 잔잔하게 풀어낸다. 물론 저자가 일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도 앙증처럼 곁들여 있다.

그러나 천의 얼굴을 간직한 파리는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곳의 여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두꺼비집 화재로 크리스마스이브에 모델 신세를 지고, 갑작스런 탈진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럼에도 저자는 파리를 알고 배워야겠다는 열정 하나로 일상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낸다. 언어, 습관, 교육, 인간관계 등을 배우기는 학습자로서의 면모에선 성실함과 진지함이 드러난다.

저자는 10여 년 전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대던 즈음에 미술의 도시 파리로 가야할 때가 왔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노트를 하나만 있으면 무인도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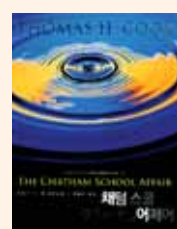
이탈리아 역사학자인 카를로 치폴라가 쓴 '시계와 문명'은 근대 초 유럽 문명의 극적인 부상을 기술 진보의 측면에서 탁월하게 설명한 저작으로 그의 또 다른 저서 '대포, 범선, 제국'과 함께 유럽 근대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이다.

신간

▲**꿈꾸는 10대를 위한 그리스인 이야기** 상하=문명의 뿌리가 된 고대인들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헬렌 A.거버의 '세계인 이야기' 시리즈의 첫번째. 놀라운 창의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그리스인들을 다룬다. 뛰어난 시인 호메로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위대한 정복왕 알렉산드로스 등 꿈을 이룬 그리스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 문화의 형성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생크림·각 권 1만2000원>

▲**퍼스 색슨과 올림포스의 신** 1~4=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판타지 소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현대 도시와 신화의 세계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퍼스 색슨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올림포스 신들과, 어둠의 신들, 괴물들이 벌이는 엄청난 전쟁과 음모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거대한 판타지의 세계가 펼쳐진다. <한솔수북·각 권 1만원>

▲**소로에서 뱀보까지, 길 위의 문장들**=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조지 기싱, 크리스토퍼 몰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등 영미 유럽권 유명 작가 10인의 걸작 에세이와 아르튀르 랭보, 윌트 휘트먼의 시를 담았다. 인류 문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들의 '내면 풍경 속 걷기'라 할 수 있는 에세이와 시편들을 통해 행간에 깊이 배어있는 깊은 사색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예문·1만5000원>



▲**우리 모두는 부처다**=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법인'(四法印·부처의 네 가지 기본 진리)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불교 입문서. 티베트 불교의 영적 스승인 저자 종사르 잠양 켄체는 진정한 불교인은 사법인을 인생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자, 불교의 형식적인 측면에 충실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한다. <광세·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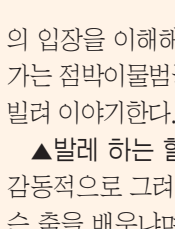
▲**채텀 스쿨 어페어**=범소설이 가진 한계와 경계를 허물어 버린 작가 토머스 H. 콕의 대표작이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에드거 상 최우수 장편 소설 상과 스웨덴 마르틴 벡 상을 수상했다. 비극적인 운명의 드라마 속에서도 위기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슬픔의 미학'을 느낄 수 있게 한 절묘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는 '주홍색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돼 TV드라마로도 제작됐다. <RHK·1만3800원>

▲**부의 본심**=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소설 '상혼'을 썼던 작가 무신화가 21세기 '부(富)'라는 주제로 독자들에게 돌아왔다. LA 카지노에서 7년간 딜러로 일하며 부에 대한 철학을 길어 올린 저자는 부의 노예가 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의 속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후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중앙mb·1만5000원>

▲**내 책에 악어가 살아**요=아이들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신기한 그림책. 그림책 속 악어가 무서워 책을 펼쳐보지도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작은 용기를 갖게 한다. <북스토리아이·1만2000원>

▲**옛날옛날에 탐 따라** 돌고돌아=잘 알려지지 않은 탐과 종에 얽힌 설화를 찾아내 역사 속 민중의 삶을 재조명한다. 서민들의 탐과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탐과 종 10여 개에 얽힌 설화를 소개한다. 또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탐과 종을 생생한 사진으로 소개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란자전거·9800원>

▲**독에 관한 50가지 궁금증**=동식물과 광물을 비롯해 독가스, 독극물, 화학 약품과 화학 무기, 방사성 물질, 의약품에 쓰이는 독성분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온갖 독들의 활약상이 담겨 있다. 독이 되는 약과 약이 되는 독, 무



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해일까. 역사, 과학,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제 사례 50가지가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펼쳐진다. <독·1만4000원>

▲**백령도 점박이물범** 두율이=드넓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백령도 점박이물범 두율이의 성장 이야기. 엄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한 번 더 성장하는 아기 점박이물범 두율이, 천재 백상아리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슬픔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점박이물범들의 이야기가 두율이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다. <국민서관·9500원>

▲**발레 하는 할아버지**=세대 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생활 문화. 남자아이가 무슨 춤을 배우냐며 반대하던 할아버지가 어느새 손자를 따라다니며 발레를 배우게 된다. 창피해하던 아이는 점점 자신에게 한걸음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가족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선물한다. <마스트비·1만원>

어린이 책꽂이